



'롯데백화점 37주년 에디션'

콘차이토로 그란 레세르바 까베르네 소비뇽 Lot.1

Concha y Toro Gran Reserva Cabernet Sauvignon Lot.1

지역	칠레 > 센트럴 밸리 > 라펠 밸리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검붉은 매혹적인 색상으로 체리, 까시스 등의 스파이시한 향과 더불어 검은 과실향이 조화롭다. 부드러운 탄닌감으로 언제 마셔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다.		



제품설명



칠레 최고의 와이너리 콘차이토로의 그란 레세르바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 중 최고의 구획에서만 생산하는 포도로 주조한 창립 단독 제품이다. 롯데백화점 37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완성된 그란 레세르바 Lot.1 까베르네 소비뇽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까베르네 소비뇽이 재배되기에 뛰어난 때루아를 지닌 칠레 텡기리리카강 유역 1 구획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최고 품질의 포도를 엄선하여 완성된 특별 에디션이다. 특히 2016년 소펙사 주최 소믈리에 대회에서 최초 여성 챔피언을 차지한 양윤주 소믈리에가 강력 추천하는 프리미엄 와인이다.

와이너리



1883년 설립된 콘차이토로는 남미의 대표 와이너리로 현재 전세계 147개국에 수출 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두하는 와이너리이다. 1997년 프랑스 특급 와인의 자존심인 샤토 무동 로실드의 바롱 필립 가문과 조인트 벤처로 알마비바를 출시하여 칠레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의 장을 연 콘차이토로는 10,800헥타르가 넘는 빈야드를 칠레 뿐 아니라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양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세계적인 전문지 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최고의 와이너리에 등극하였다. 콘차이토로의 아이콘 와인인 돈 멜초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전문지 100대 와인에 총 8번 선정되어 칠레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플래그십 와인 가르민 데 페우모는 칠레 와인 중 로버트 파커 최고 점수 97점을 받은 와인이다. 이렇듯 콘차이토로는 최고급 와인부터 트리오, 프론테라 같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와인까지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와이너리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